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금융환경의 변화추이

-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화, 통합화 추세
- 겸업화의 확산과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 금융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II.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문제점

1. 은행산업의 비효율성 지속
2. 직접금융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 회사채시장의 변화
 - 주식시장의 역할 미흡
 -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불신
 - 기관투자자의 신뢰 상실

III. 금융시장제도의 문제점

1. 정부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개입
2. 비효율적 금융규제
 - 은행소유규제로 인한 은행산업의 자율성 침해
 - 진입규제
 - 업무영역 규제
 - 자산운용 규제
3.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필요

IV. 금융시장 개선방안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의 방향
 - 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 나. 직접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제도 개선
 - 기관투자자의 육성
 - 채권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
2. 금융규제의 정비
 - 관치금융의 배제
 - 은행소유규제 완화
 - 진입규제 완화
 - 업무영역 규제완화
 - 자산운용 규제완화
3.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1. 금융환경의 변화 추이

□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화, 통합화 추세

- 자본자유화의 확대,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화 및 통합화 추세
 - 최근 지역적인 위험 때문에 동조화 경향이 일시적으로 약해짐.
-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국경을 초월하여 격화됨.
- 우리나라는 금융국제화라는 추세하에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는 노력을 지속함.

□ 겸업화의 확산과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 급속한 금융세계화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겸업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도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간접적인 금융겸업화의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미 증권과 은행간의 업무제휴가 허용되었고, 8월에 도입될 방카슈랑스제도 하에서 은행과 보험간의 업무제휴가 허용될 것임.

□ 금융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 구조조정 이후에도 은행산업의 비효율성 지속됨.
- 회사채시장의 성장으로 기업자금조달에서 직접금융시장 역할 증대
 - 금융시장의 증권화로 ABS 시장의 확대되었고 이는 회사채시장 성장에 일조를 함.
 - 금융구조조정 이후 은행대출의 감소와 우량 대기업 중심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함.
- 주식시장의 역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기관투자가의 상대적 비중 낮음.
 - 그러나 금융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인 파생상품의 거래가 200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거래규모가 세계적 수준임.
- 금융구조조정 이후 기업자금조달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지속됨.
 - 금융구조조정 이후 우량 대기업들은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을 주로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함.
 - 비우량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회사채시장과 은행대출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II.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문제점

1. 은행산업의 비효율성 지속

- 시중은행과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 2000~2002년 외국은행의 평균 ROE가 13.1%인 반면, 시중은행의 평균 ROE는 5.5%에 불과함.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은행들의 경쟁력은 훨씬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표 1>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ROE 추이

(단위: %)

연도 은행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시중은행	-14.1	-48.6	-24.7	-10.8	16.3	11.0
외국은행	34.79	14.82	9.22	18.14	13.27	7.5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은행에 대한 정부의 높은 지분율과 민간에 대한 은행소유제한 때문에 은행의 자율적 경영이 어려움.

- 은행 지배구조와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킴.

- 1998년 중반부터 은행이 담보위주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은행의 신용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신용대출의 정착에 한계가 있음.

- 최근 가계부채 부실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기업대출이 우량기업 위주로 공급되어 대출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임.

-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은행 간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자발적 인수합병은 인적자원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 은행산업에서 시장규율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1년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인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은행간 차별이 인식되지 않아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시장규율의 효과가 없음.

- 예금보험으로 은행권의 모럴해저드 성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 직접금융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 회사채시장의 변화

- 금융구조조정 이후 은행들의 기업금융 축소와 저금리기조로 인하여 회사채시장이 성장함.

- 그러나 회사채시장의 거래는 주로 우량 대기업 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
- 1998년 이후 금융기관의 보증기피, 보증회사채 원리금 보장 중단 등으로 회사채시장이 보증회사채 중심에서 무보증회사채 중심으로 전환됨.

<표 2> 일반회사채 및 ABS의 발행금액과 구성비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일반회사채	34,322.12 (100.0)	56,000.30 (100.0)	26,226.74 (85.5)	17,718.46 (30.2)	47,575.99 (54.6)	48,555.61 (62.6)
ABS	-	-	4,444.70 (14.5)	40,944.39 (69.8)	39,618.95 (45.4)	29,026.37 (37.4)
회사채 합계	34,322.12 (100)	56,000.30 (100)	30,671.44 (100)	58,662.85 (100)	87,194.94 (100)	77,581.98 (100)

주: 괄호안은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표 3> 회사채 특성별 발행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보 증	29,188.26 (85.0)	17,513.60 (31.3)	1,278.64 (4.2)	1,461.66 (2.5)	1,417.50 (1.6)	844.98 (1.1)
무보증	5,133.86 (15.0)	38,390.90 (68.5)	29,338.80 (95.6)	57,136.19 (97.4)	85,677.44 (98.3)	76,737.00 (98.9)
담보부	-	95.80 (0.2)	54.00 (0.2)	65.00 (0.1)	100.00 (0.1)	-
합 계	34,322.12 (100)	56,000.30 (100)	30,671.44 (100)	58,662.85 (100)	87,194.94 (100)	77,581.98 (100)

주: 괄호안은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신권이 고위험·고수익의 투자를 한 결과, SK글로벌 채권, 카드사 채권에서 비롯한 단기자금 시장 문제 발생
 - MMF의 부실책임은 투신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입으로 채권시장의 왜곡을 초래함.
 - 현 MMF 환매 제도로 인해 투신사의 유동성이 악화됨.
- 최근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장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불안정한 금융시장 때문에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격감하고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회사채에 대한 국채의 상대적 비중이 확대됨.

<표 4> 채권 발행액

(단위: 십억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국 채	7,711 (18.3)	17,570 (23.9)	29,304 (48.9)	24,692 (29.6)	30,865 (26.1)	34,462 (30.8)
회사채	34,322 (81.7)	56,000 (76.1)	30,671 (51.1)	58,663 (70.4)	87,195 (73.9)	77,582 (69.2)
합 계	42,033 (100.0)	73,570 (100.0)	59,975 (100.0)	83,355 (100.0)	118,060 (100.0)	112,044 (100.0)

주: 괄호안은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주식시장의 역할 미흡

- 회사채시장의 성장으로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은 확대되었으나 주식시장의 역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표 5> 주요국 기업의 자금조달 구성비율¹⁾

(단위: 잔액기준, %)

구분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차입금	33.1	38.8	12.1	18.5	33.3
유가증권	21.0	9.3	8.2	6.4	1.3
주식 및 출자금	22.5	33.8	66.6	70.0	54.3
기타 ²⁾	23.2	18.0	13.1	5.1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999년 말 현재, 한국은 2002년 말.

2) 기업간 신용 등

자료: 일본은행, 「국제 통계비교」, 2000.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2003.

□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불신

- 기업회계가 아직도 불투명하고 기업이 주식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함.
- 기업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투자자의 초단기 투자의 만연

- 정부의 증권시장에 대한 개입관행과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 초래

□ 기관투자자의 신뢰 상실

- 기관투자자들의 불투명한 자금운용으로 말미암아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음.
- 외환위기 이전에 30%에 근접했던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비중이 외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여 20% 미만 수준임. 즉,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높음.

<표 6> 주식시장의 기관투자자 소유비중 추이

(단위: %)

연도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기관투자자	26.0	13.6	13.7	15.3	16.5	19.7
일반법인	22.8	19.9	17.3	22.0	19.3	20.0
개인	39.8	38.8	39.0	37.7	45.7	44.2
외국인	9.1	10.4	12.4	13.8	11.8	9.5

자료: 증권거래소, 주식

III. 금융시장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산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인함.
 - 정부의 금융기관경영 및 금융시장 개입
 - 비효율적 금융규제의 존속
 -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전문성 필요

1. 정부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개입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행이 지속됨.
- 은행구조조정시 증가한 은행주식의 정부소유지분은 관치금융의 구실이 됨.
- 정부는 은행장을 비롯한 은행임원의 임명에 대해서 간섭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회장제도 선택여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함.

<표 7> 정부의 은행주식의 보유현황

(단위: %)

은행 \ 보유기관/지분율	기관	소유지분율
국민은행	정부	9.3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32.5
	한국은행	10.7
하나은행	정부	21.7
조흥은행	정부	80.4
제주은행	예금보험공사	44.7
우리금융지주회사	예금보험공사	87.7
제일은행	예금보험공사	48.0
	재경부	3.0

자료: 증권거래소

- 정부는 부실기업의 문제 및 금융시장 문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단기적 대응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을 저해함.
- 국책은행의 자율성 및 투명성 결여

2. 비효율적 금융규제

□ 은행소유규제로 인한 은행산업의 자율성 침해

- 은행은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경쟁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인식이 부족
 - 기업의 사금고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재벌정서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지배는 금기시 됨.
- 영국에서는 은행지분의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주식의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함.
- 동일인(외국인 포함)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10%(지방은행 15%) 이하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4% 이하이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10%를 소유하는 경우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
 - 10%, 25%, 33%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금감위의 승인 필요
- ※영국의 은행지분의 소유규제: 한 은행에 대하여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7일 내에 중앙은행에 서면통보함. 한 은행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 중앙은행이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진입규제

- 금융기관의 최저설립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금융산업의 경쟁도가 낮고 과점적 이윤의 보장으로 금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함.

<표 8> 금융산업의 최저설립자본금

기관 \ 요건	최저설립자본금	외국례
은행	시중은행 : 1000억원 지방은행 : 250억원	미국 : 100만달러 영국 : 100만파운드
증권	종합 : 500억원 자기매매/위탁매매 : 200억원 위탁매매 : 30억원	미국 : 100만달러 영국 : 10만파운드
증권투자신탁	100억원	미국 : 10만달러 영국 : 40만파운드
선물거래	30억원	미국, 영국 : 자본금 요건없음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액	발행주식 총액
보험	생명보험 : 300억원 화재보험 : 100억원 자동차 보험 : 200억원 특종보험 : 100억원	미국 : 생명보험 : 600만달러 손해보험 : 종 목 별 10만~200만 달러 영국 : 생명보험 : 160만 파운드 손해 보험 : 종 목 별 20만~40만 파운드
여신전문금융업	2개 이하 : 200억원 3개 이상 : 400억원	
상호저축은행	특별시 : 120억원 광역시 : 80억원; 도 : 40억원	

자료: 재경부, 규제개혁위원회

-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최저설립자본금은 1,000억원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100만달러, 영국의 경우는 100만파운드임.
- 손해보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 설립시 보험대상을 세분화하여 낮은 설립자본금(최저 10만달러)으로 특정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종보험의 최저설립자본금이 100억원임.
- 증권업과 보험업의 설립시 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을 지정함에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채무비율 20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규제는 없음.

□ 업무영역 규제

- 금융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금융업간의 겸업에 의한 범위의 경계를 누릴 수 없음.
- 금융업간의 직접적인 겸업회는 위험노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

- 사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겸업화를 유도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금융겸업을 금지하지 않음.
 - 미국에서는 1999년 Gramm-Leach-Bliley법에 의해 1933년 Glass-Steagall법 이후 금지되어왔던 은행업과 증권업(자산운용업)의 겸업이 허용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과 은행간 업무제휴, 8월에 도입될 방카슈랑스제도 하의 은행과 보험간 업무제휴는 적극적인 의미의 겸업이라고 할 수 없음.
-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금년 8월부터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함.
- 증권회사의 경우 업무영역이 인수와 중개에 국한되어 있어 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외국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규제가 건별허가제(Positive Listing System)로 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개발 및 연계서비스실행이 어려움.

□ 자산운용 규제

- 은행의 3년 이상 만기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은행자산의 효율적 구성을 저해함.
- 은행의 3년만기 회사채에 대한 투자와 대출은 유동성을 제외하고는 성격은 같음. 유동성의 측면에서 회사채가 대출보다 훨씬 우월함.
-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할 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100%로 적용하여 채권을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저해함.

-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효율적 구성을 저해함.
 - 은행: 대출금 증가액의 시중은행은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 생명보험사: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 이상
 - 종금사: 팩토링금융, 어음보유액,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금 합계액의 25% 이상

- 투신운용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신탁재산의 10%로 제한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함.

3.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필요

- 정부정책이 금융감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잉감독 또는 감독유예가 발생함.
 - 즉, 금융감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복잡해지는 금융환경에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를 감독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함.
 -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등 부문별 감독은 유사한 기능에 다른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IV. 금융시장 개선방안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의 방향

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구조조정 이후 대출시장은 위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아직도 기업자금조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함.
 - 주식시장의 침체와 단기채 중심의 회사채시장으로 인해, 기업시설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은행의 경쟁력은 자율경영을 토대로 한 은행들의 경쟁에 의해 제고될 수 있음.
 - 정부의 은행인사 및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을 배제함.
 - 소유규제,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자산운용규제 등의 개선은 은행들의 자율성과 경쟁을 촉진
 - 은행간 합병은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추진
- 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은행은 정교한 신용평가에 의해 대출자금을 배분하고 양극화된 기업대출시장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음.
 - 신바젤 협약에서 은행의 내부신용평가모형 요구
-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할 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여 대출채권을 평가함으로써 효율적 자산운용을 유도함.
 - 신바젤 협약에서 차별화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현 BIS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균등보험요율제도를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요율을 차별하여 부과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로 전환하고, 예금보장한도를 축소함.
 - 차등예금보험요율을 공표하여 은행간 자금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은행간의 경쟁과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신용파생상품시장 및 대출채권 유동화를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이 신용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확대시킴.
 -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신용파생상품(예: credit default swap 등)을 이용하여 대출의 신용위험을 헷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은 과도한 신용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음.
 - 대출채권 유동화 활성화: 대출채권의 직접매각(loan sales) 및 대출채권의 증권화(securitization) 등을 활성화시켜, 금융기관이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나. 직접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제도 개선

- 기업의 공시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

□ 기관투자자의 육성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필요

- 기관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신탁자산운용의 투명성제고, 환매제도 개선 등 간접투자제도의 개선필요
 - 간접투자상품의 환매제도 개선: 당일가격으로 익일환매제로 전환
- 증권발행시장에서 증권사의 평판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도록 시장조성 의무비율 축소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겸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겸업은행을 중심 기관투자자로 육성함.

□ 채권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

- 국채의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다양한 만기의 회사채 발행을 유도함으로써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음.
- 회사채 대상 Repo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
 -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회사채 수요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동시에 회사채 신용위험 평가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책도 필요
- 다양한 채권평가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채권평가회사의 경쟁에 의한 채권평가체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채권평가 기술수준을 제고함.
 - 채권평가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채권가격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자금조달을 유도함.

- 무보증회사채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하여 회사채 발행비용을 경감시키고 시장자율에 의한 신용평가 유도함.
 - 복수평가제를 폐지하고 회사채의 신용평가 여부는 발행기업과 인수·투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비우량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고위험 투자수단을 제공해주는 효과도 있음.
- 기관투자자들이 보유채권을 분할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함.
-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을 평가할 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여 회사채를 평가함으로써 효율적 자산운용을 유도함.
- 주식 및 채권 관련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여 증권투자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및 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함.
 -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원금보장형 채권관련 상품의 개발을 유도함.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배당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이는 장기주식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처럼 배당에 대해서도 일정한도까지 세금 감면을 통해 배당 확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

2. 금융규제의 정비

□ 관치금융의 배제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임원선임 및 지배구조 결정과정과 금융기관 경영에 정부개입관행을 배제시킴.

- 정부관료의 낙하산인사 금지하고 은행장 선임과정에 정부개입 배제

- 금융구조조정시 매입했던 은행의 정부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관치금융의 구실을 제거함.

- 국책은행의 자율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

- 정부는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책이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증권시장문제 해결책을 지양

- 연기금 및 공공기관자금의 주식시장 투입, 일시적 세제혜택 등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책 지양
- 은행의 단기자금경색 해결을 위한 유동성공급을 제외한 시장개입 지양
- 증권시장 가격수준(금리포함)에 대한 정부관료의 평가발언 자제

□ 은행소유규제 완화

- 주주의 특성과 관계없이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완화. 영국의 기준을 고

려한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7일 이내에 금감원에 서면신고
 -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 금감원은 서류제출을 즉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소유규제완화에 의해 우려되는 문제는 은행지배구조 개선과 은행감독의 강화로 해결
- 현재 대형은행에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됨.

□ 진입규제 완화

- 금융기관의 최저설립자본금을 대폭 인하하여 금융산업의 경쟁 및 차별화 촉진. 영국의 기준을 고려한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은행업의 최저설립자본금: 100억원
 - 증권업의 최저설립자본금: 종합 50억원, 위탁 10억원
 - 보험업의 최저설립자본금: 생명보험 100억원, 화재보험 30억원(종목차별)
- 증권업과 보험업의 설립시, 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을 지정함에 있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

□ 업무영역 규제완화

- 금융겸업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금융업간의 겸업에 의한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함.

- 은행을 겸업은행(universal bank)화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함.
 - 겸업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한 규제를 Negative Listing System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금융상품개발 및 금융상품의 연결을 촉진

□ 자산운용 규제완화

- 은행의 3년 이상 만기 회사채에 대한 투자규제를 폐지하여 은행자산의 효율적인 구성을 유도함.
- 금융기관에 부과된 중소기업대출의무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효율적 투자를 유도함.
- 투신운용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신탁재산의 10%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함.

3.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기준을 가지고 정부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집행
- 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권역별 금융감독을 기능별 금융감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법의 예고는 기능별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을 자본비율 및 자산분류 중심에서 금융리스크관
리 중심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
-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의 감독을 위한 금융공학 전문인력의 확보
및 활용
-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정책을 위한 해당 전문인력의 확보 및 활용